

등재 과정과 의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直指



19 72년 프랑스 파리에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로 약칭)』이 공개된 후 대다수의 국민들이 유네스코가 이 책을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한 것으로 알았다. 또한 공개 당시 책 이름도 『직지심경』으로 알려져 국사 교과서에도 『직지심경』으로 잘못 기재되어 왔다. 당시에 유네스코에는 이 책을 공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책의 원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72년 이후 우리 국민들 뇌리에서 『직지』가 다시

살아난 것은 1985년이다. 이 해에 이 책이 간행된 청주 흥덕사 터가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근래에 풍납토성 내 아파트 건축을 둘러싸면서 보존이나 개발이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85년 흥덕사 터가 발굴된 곳도 택지 개발로 인하여 사전 조사도 없이 포크레인에 의하여 1/3가량이 파손된 곳이었다. 개발이 우선되었더라면 우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를 찍은 청주



홍덕사는 역사 속의 미야로 전락했을 것이다.

청주 홍덕사 터가 발굴된 1985년 때마침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직지』와 외규장각도서를 열람하였다. 여기에서 이 책의 중요성을 인정한 대통령은 귀국 후 충청북도를 연두 순시하는 자리에서 청주 홍덕사 터의 보존과 함께 전시관을 지을 것을 지시하여 1992년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탄생하였다.

『직지』가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실을 인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았다. 청주시에서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1994년부터 세계 석학들을 초청, 동·서양 금속활자 인쇄 기술과 『직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격년제로 개최하였고, 1995년부터 매년 해외 순회전시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직지』를 등재하는 것이 이 책의 우수성과 가치를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보고 1998년 9월 2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하여 유네스코본부에 등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직지』는 199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들의 원산지과 소유국이 일치하지만 『직지』는 한국에서 간행한 후 프랑스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네스코본부에서는 1998년 9월 8일

프랑스와 공동신청을 권유하는 전문을 보내왔다. 이에 10월 17일 외교통상부와 유네스코한국대표부를 통해 『직지』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프랑스정부에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999년 2월 4일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부터 온 회신은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직지』가 《제4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자 청주시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제5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를 청주에 유치하여 이 책을 등재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청주시에서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최진섭 관장, 라경준 학예연구사, 임채영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허 권 문화부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1999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제4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자문위원들에게 『직지』의 가치와 우수성, 인류사에 끼친 영향력 등을 소개하며 이 책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제5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의 청주 유치도 신청하였다.

그러나 동 회의의 청주 유치는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였다. 동 자문회의 개최지가 지금까지 각 나라의 수도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수도가 아닌 지방의 도시에서 유치한다는 것 자체에 자문위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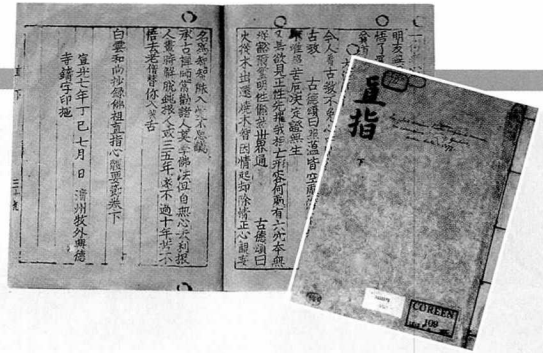
이 난색을 표명했다. 그리고 《제4차 유네스코세계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멕시코 대표가 다음 회의 장소로 멕시코시티 유치를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 위원이 아니고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상태라 공식석상에서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청주시 대표단은 자문위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하여 기록유산의 중요성을 아시아권에서 홍보할 수 있는 한국의 청주가 다음 개최지로서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2000년에 개최될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임원단회의》를 멕시코시티에서 가져가는 대신 《제5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를 청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위원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1999년 6월12일 오스트리아 국립과학원에서 동 회의의 청주 유치가 결정

되었다.

비록 《제5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를 청주에서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유네스코 자문위원들이 『직지』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어렵기 때문에 유네스코 총회가 열리는 1999년 11월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옛 인쇄 문화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에 유네스코 본부 Abid 기록유산담당관을 비롯한 많은 유네스코 인사들이 참석하여 『직지』를 비롯한 한국의 옛 기록물들을 관람하였고, 그 우수성에 대하여 놀라워하였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2001년 6월 《제5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가 청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추천한 『승정원일기』만이 안전으로 상정되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에 유네스코본부 Abid 기록유산담당관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여수 사무총장과 허 권 문화부장, 김귀배 차장의 노력으로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6월22일에 표방하여 이 책이 제5차 회의 안전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직지』가 《제5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의 안전으로 상정되자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에서 제동을 걸어왔다.

외규장각도서 반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안전으로 상정하지 말라는 이유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2001년 6월27일부터 6월29일까지 청주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직지』와 『승정원일기』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5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자문위원들이 『직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지만 『승정원일기』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승정원일기』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이 없다는 점, 그리고 1997년에 지정된 『조선왕조실록』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등재에 난색을 표명하였다. 만약에 《제5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가 한국 열리지 않았다면 『승정원일기』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어려웠을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직지』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

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직지』는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로 인쇄문화의 전파와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준 기록유산으로 인정될 하게 되었고 현재 프랑스에 단 한 권만이 보관되어 있기에 그 희귀성이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선정하는 데 크게 고려되었다. 아울러 『직지』와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서양의 금속활자본으로 인류의 기록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꾼 최대의 유산이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사업의 정신에 입각해 등재를 권고한 것이다.”

유네스코 측의 의견에서 보듯이 이제 『직지』는 한국만의 기록유산이 아닌 세계인들의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제3세계 등 약소국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1999년까지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은 원산지와 소유국이 같은 기록물만이 그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행하고 현재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직지』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강대국에 약탈당한 제3세계 국가의 기록물들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듯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한국민만의 쾌거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 핍박을 받은 제3세계 등 모든 약소국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리경준 ·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사〉